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2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뉴욕 경찰, 정부당국에 드론 격추권한 요구

- 2.17 뉴욕경찰은 국제 테러조직의 드론 테러 선동으로 인해 실제 드론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, 긴급상황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정부당국에 요청

* '18년 美 의회는 연방정부 법집행기관에게만 위급 상황시 드론 격추 권한 부여

중 동

○ ISIS 조직원 1천여명, 현금 2천억원 들고 이라크로 도주

- 2.17 CNN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, 지난 6개월간 1천명이 넘는 ISIS 조직원들이 시리아에서 이라크 서부사막과 산악지대로 도주했으며, 최대 2,252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
○ 리비아,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튀니지 근로자 14명 구출

- 2.18 AFP통신은 리비아 보안군이 2.14 리비아 북서부 자위야에서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튀니지 근로자 14명을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구출하였다고 보도

* 리비아 무장단체는 튀니지에 수감되어 있는 동료 대원의 석방을 요구

○ 궤멸직전 ISIS, 조직원 이탈 등 혼란상 표출

- 2.19 워싱턴포스트는 ISIS가 궤멸직전에 내몰려 식량을 못 구한 민간인들은 잡초를 삶아 먹고, ISIS조직원들도 총을 버리고 도망치는 주민들 대열에 합류하는 등 극심한 혼란 속에 있다고 보도

유럽

- 벨기에, 자국發 열차·버스승객 대상 테러 등 범죄전력 조회 예정
 - 벨기에 국가위기센터는 연말부터 자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버스·열차의 테러·범죄 예방을 위해 출발 48시간前 및 출발 직전 등 2차례 탑승객의 테러·마약 등 범죄경력 조회제도를 시행할 예정
 - * 벨기에는 출·도착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는 既 실시 중
- EU-시리아, ISIS 외국인테러전투원 처리문제 이슈로 부상
 - 시리아민주군은 50개국 출신 800여명의 ISIS전투원 등 포로*들이 출신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, 각국은 이들의 처벌·재활이 어렵고 안보위협을 우려하여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송환문제가 논쟁으로 부상
 - * 외국인전투원 800여명, 그들의 아내 700여명, 자녀 1,500여명을 억류 중
- 佛, 反유대주의 규탄 시위에 대규모 군중 참가
 - 2.19 현지 언론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60여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최근 빈발하는 유대인 혐오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도
 - * 佛, '18년에 500건 이상의 유대인 대상 범죄 및 테러 발생('17년 대비 74% 증가)

아·태평양

- UN, 우즈벡 출신 테러조직원의 한국行 가능성 제기
 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‘이슬람국가·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는 시리아內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*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 보고
 - * ‘카티바 이맘 알부카리’와 ‘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’로 각각 200~300명 규모

파키스탄 수피파 성지에서 ISIS 자살폭탄 테러

- '17. 2. 16 파키스탄 남부 신디州 세완에 있는 이슬람 수피파*의 '랄 샤바즈 칼란다르'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72명 사망, 250명 부상
 - * 이슬람 수니파의 한 분파인 신비주의 종파로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중시하며, 명상·수행 등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기를 추구
 - 사건 당일엔 수피파에게 '성스러운 날'로 사원에는 수백 명의 신자가 모여 있었으며, 저녁예배를 마치고 다말의식*을 위한 준비 중
 - * 석양 무렵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의식으로 정신적으로 신과 가까워지기를 추구
 - 테러범은 신자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홀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폭
-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직후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부상자 이송
 - 「나와즈 샤리프」 총리는 “수피신도들은 파키스탄 건국 이전부터 있었고 파키스탄 독립투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”며 “이들에 대한 공격은 파키스탄에 대한 직접적 위협”이라며 비난
 - 한편,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는 테러 배후를 자처

< 이슬람 2대 교파(수니파와 시아파) >

- (구 분)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,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(칼리프)로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계승 문제로 분파
 - 수니파 : 공동체 합의로 칼리프를 선출
 - 시아파 : 무함마드의 후손만을 칼리프로 인정, 신성성 부여
- (갈등계기) 6~7세기경 무함마드의 후손인 4대 칼리프가 우마이야 가문에게 암살당하고 우마이야 세습체제로 이어가자, 시아파가 반란을 일으키나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
- (세력분포) 12억명의 이슬람교도 중 수니파는 90%, 시아파는 10% 수준이며 수니파는 사우디·요르단·리비아·파키스탄·아프간 등에서, 시아파는 이란·이라크 등에서 우세
 - * ISIS·보코하람·알카에다 등은 수니파 테러단체 / 헤즈볼라는 시아파 테러단체